

농촌 청소년 교육의 과제와 발전방향

오 해 섭

한국청소년개발원

A Study on the Issues and Alternatives of Rural Youth Education

Hae Sub Oh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Summary

This study sought to search for the new alternatives and direction to develop and strengthening rural youth education in Korea. Th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on articles, proceedings and other sources relevant to the pending issues and difficulties of rural youth education in Korea.

Some of the critical needs for improving rural youth education in Korea included the following aspects or alternatives; 1) Strengthening the partnership between rural adult and youth would be necessary to gain broader support and to establish the increased awareness of adults for rural youth education. 2) Better coordination and cooperative efforts should be emphasized among various programs and institutions in implementing rural youth education policies and programs. 3) Developing a strong link between the agribusiness sector and the rural youth education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to produce the effective results.

Further activities to develop and implement diverse programs and projects to cope with new trends in farming and agriculture as well as changing trends in marketing sector of agribusiness and rural communities in Korea. The rural leadership and community networks should be established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rural youth educational activities.

Key Words : Rural Youth, Youth Education, Critical Needs, Youth Support

I. 들어가며

과거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산업유형을 비롯하여 지역적인 특성과 그들의 생활양식 등이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사회구조 및 생산수단의 다변화와 지역 간 구분이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도시와 농촌청소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다만 일반적인 시각에서 행정구역 단위로 인구 5만 명 이하를 농촌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업시설과 인구의 균형적인 재배치를 위한 지방화 전략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와 같은 커다란 변화의 기저에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국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하게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농촌과 도시로 구분하기 보다는 지역주민들의 다면적인 생활권에 바탕을 둔 지역사회(communitiy) 개념이 서서히 논의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같은 전환기에 놓여 있는 농촌지역의 청소년 교육은 여전히 학교와 같은 제도화된 교육체계가 커다란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어느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거나 교육내용을 국한하지 않고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 농촌사회교육이 학교교육기능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보완적 역할과 대체적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여 왔다(김동일, 1995). 그동안의 농업인

과 농촌 청소년을 위한 사회교육은 학문적인 개념의 도입이 미약하였으며, 더욱이 학교교육 중심의 교육행정체계 내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다만 정부주도의 농촌지도사업이 그 주류를 이어오면서 농업인과 농촌 청소년을 위한 사회교육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농촌지도사업은 그 자체적인 문제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지도사업이 사회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학문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접근이 아닌 상의하달식의 행정적인 접근에 크게 의존해 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농촌의 관 주도형 사회교육이 농촌 청소년들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기보다는 국가의 농정구현을 위한 미봉책적인 수단으로 수행됨으로써 종합적인 농촌개발에 관계되는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농촌 청소년들의 자발성과 적극성도 배제된 경향이 있었다. 그나마 광복 후 1947년 처음으로 농촌 청소년구락부로 그 조직 활동을 시작한 이래 본격적인 4-H회의 창립과 이를 통한 다양한 운동과 활동들이 이루어지면서 농촌 청소년을 위한 사회교육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현재 4-H회의 조직구성은 크게 읍·면 단위와 시·군 단위로 영농4-H와 학생4-H로 구분되어 있으며, 농촌진흥청, 지역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한국4-H본부 중심을 각각의 필요성과 요구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농림부를 비롯한 농업관련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청소년교육과 영농 후계인력 육성 사업이 우리나라의 농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미래세대의 육성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라는 인식을 갈수록 더욱 실감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는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이농에 의한 농가인구의 감소, 농업 취업자의 감소, 농업 인력의 고령화 및 영농승계인력의 급감에 따라 농촌이 활력을 상실하고 농촌사회의 공동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예영농인력의 확보와 농촌발전을 주도할

농업인력 육성 필요성이 대두되어, 1981년 농업인후계자 제도를 시초로 국가의 정책자금 지원에 의한 농업인력 육성이 실시되었다. 농업인력 육성정책은 농업인 후계자제도가 실시된 이래 1990년대에는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법인경영체 육성, 전업농 육성 및 예비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정책 등의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나아가 현행 인력 육성 정책은 후계농업인, 전업농 육성, 농업법인 양성 및 교육을 근간으로 하여 「취농창업후계농업인제도(’01)」를 마련함으로써 후계농업인제도를 신규후계농업인과 취농창업후계농업인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였다(소만호, 2002).

최근 들어서는 농촌 청소년교육의 목적이 농업의 과학화를 통한 최고의 품질생산, 농업의 정보화를 구축하여 농산물 전자상거래 및 시장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국내 상황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동시에 WTO하에서 세계시장으로의 진출기반 마련과 시장경쟁체제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에 근거하여 현재 우리 농촌의 청소년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농촌 청소년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농촌 청소년의 현황 및 당면문제

1. 우리나라 4-H회의 현황 및 육성의 문제점

우리나라 농촌 청소년의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4-H회원은 1986년 1백만 명을 최고로 점차 감소되어 2001년 현재 6만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영농회원은 92년 26천 명에서 2001년에는 1만 3천 명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전체적인 4-H회

〈표 1〉 년도별 전국 4-H육성 현황

년 도	구 분	계	분 류		
			영농4-H	학교4-H	일반4-H
1994	조 직 수	5,269	1,889	3,214	166
	회 원 수	105,125	24,761	76,913	3,451
1995	조 직 수	4,547	1,821	2,585	141
	회 원 수	91,330	24,433	63,880	3,017
1996	조 직 수	4,039	1,795	2,112	132
	회 원 수	81,336	23,260	55,140	2,936
1997	조 직 수	3,556	1,673	1,765	118
	회 원 수	74,689	21,593	50,509	2,587
1998	조 직 수	3,140	1,593	1,458	89
	회 원 수	67,401	19,647	45,796	1,958
1999	조 직 수	2,755	1,452	1,209	94
	회 원 수	61,607	18,632	40,707	2,268
2000	조 직 수	2,575	1,299	1,178	98
	회 원 수	58,957	17,315	39,793	1,849
2001	조 직 수	2,493	1,182	1,228	83
	회 원 수	61,857	15,696	44,439	1,722
2002*	조 직 수	2,493	1,182	1,286	83
	회 원 수	61,857	15,696	47,343	1,722
2003**	조 직 수	2,394	1,018	1,307	69
	회 원 수	62,414	13,775	46,892	1,747

출처* : 2002년 1월 농진청 자료 ** : 2003년 3월 농진청 자료

원 수는 약간씩 증가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영농4-H회는 매년 1,000명 정도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학교4-H 회원 수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감소부분을 상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4-H회원 수가 증가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영농4-H의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농업후계인력 육성사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러한 영농4-H회원 수가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젊은 층의 지속적인 이농현상과 농직업에 대한 기피현상과 더불어 4-H활동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심부족을 들 수 있다. 또한 그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및 체계적인 모집과 육성·관리를 위한 조직과 재원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점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오늘날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그

리고 한국4-H본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우리나라 4-H회는 그 나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최창욱, 2003).

첫째, 상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4-H조직 및 회원 수 확보가 어려운 점이다. 비록 최근 학교4-H회의 증가로 조직 및 회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 4-H회의 숫자가 너무 적어 다른 청소년단체에 비해 4-H지도교사들의 인센티브에 불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절대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회원구조상의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소위 우리나라에서 활성화 된 청소년단체들을 들여다보면 회원 수에 있어서 초, 중, 고의 인적 구성이 피라미드 형태의 안정적 구조를 보이며, 상급학교로의 활동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러나 4-H회의 회원 구조는 역피라미드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인적구성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발달단계에 따른 학령별 4-H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고 초, 중, 고, 영농4-H 모두 신입회원이 오면 똑같은 내용을 방법만 다르게 교육해야 하는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이 부분은 2002부터 시작된 초등학교의 시범운영을 통한 확대 노력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지도기관의 역할 감소와 지역 4-H민간기구의 역할이 미흡한 점이다. 그 원인으로는 4-H지도·육성 인력 및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날이 갈수록 지도기관의 역할도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완할 민간기구의 역할도 부족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 4-H단체 연간 총 예산이 6천만원~1억원에 불과하고, 4-H회원, 지도자를 양성할 전문관리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넷째, 4-H회원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들과 회원들의 생각과 행동은 급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미비하고, 이를 운영하고 개발할 연구 인력과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한국 4-H본부에서는 프로그램 개발기구 및 기반 마련을 위하여 '01년도부터 연구소 활동 본격 전개하고 있으나 연구소 연구인력 1인으로 운영하고 있어 행정적 관리에 매몰되어 연구 활동이 위축되어 있고, 연구소 사업운영 재원이 부족하여 회원교육을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4-H회원 양성의 핵심인 4-H전문지도자 양성과정 및 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4-H회원 양성을 위해서는 우수한 지도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4-H는 지도자양성 교육과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지도자를 위한 인센티브가 현저히 부족하다. 재원이 부족하여 지도자를 위한 기초적인 교육만 현재 실시하고 있고, 전체 약 3,000명에 달하는 지도사 및 지도교사의 교육은 극소수를 대상으로

로 실시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전문지도자의 확충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인센티브의 미비는 4-H활동에의 지도자 참여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

2. 농촌 청소년의 가치관 및 문화여가시설의 현황

다음으로 농촌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문화여가시설의 실태에 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그들이 처한 상황을 알아보려고 한다. 전국의 1,600명의 9-2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농촌청소년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조사한 내용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김성수 외, 2000).

첫째, 농촌 청소년의 가치관은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진로의식(24.6%), 부정적인 자아의식(22.3%), 농업·농촌 등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17.4%) 등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농촌 청소년들이 처한 열악한 사회 경제적 상황(32.8%)과 농촌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문화·여가생활 여건의 부족(17.9%)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준법의식, 사회의식, 황금만능주의 등에 있어서는 도시 청소년들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순결의식, 농업·농촌관, 공동체의식, 효에 대한 의식은 도시 청소년들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인 측면들 까지도 과거에 조사된 자료에 비해 매우 희박해져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농촌 청소년들이 가장 관심있는 사안들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공부·진학문제(49.9%), 취직문제(13.9%), 결혼·이성교제(11.8%), 가정경제문제(9.4%) 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취직, 결혼 및 이성교제, 가정경제 등에 관한 관심도는 도시지역의 청소년들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상별로는 농촌지역의 중·고등학생의 경우 공부·진학문제가 각각 70.2%와 68.8%로 가장 높았다. 또한 영농청소년의 경우 결혼·이성문제

(23.7%)와 가정경제(23.0%) 등이 도시지역의 청소년들보다 주요한 문제로 조사되었다.

셋째, 농촌 청소년의 문제행동 경험은 음주(67.7%), 흡연(48.1%), 음란사이트 시청(46.0%), 도박 및 노름(27.6%), 폭력행위(27.1%), 성 관련 행동(24.3%) 등과 같은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행동의 경험비율은 대도시지역 청소년들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할 수 있다. 그와 더불어 농촌 청소년들의 일탈행동 중에서는 흡연(15.5%)과 음주(15.4%), 이성과의 성관계(11.7%), 청소년들에 대한 폭력(10.9%), 가출(10.2%), 집단 패싸움(7.7%), 금품갈취(7.4%) 등이 주요한 문제였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건전한 여가·문화 시설부족(34.8%), 부모의 관심과 대화 부족(22.0%), 결혼가정(18.2%), 술과 담배 등 유해환경을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농촌 환경(13.6%), 불건전한 매스컴(6.8%), 부모와 가정, 혹은 농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4.5%)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농촌 청소년의 가정생활 만족도(50.0%)는 도시청소년(62.4%)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들은 가정생활에서 부모와의 갈등(20.1%), 용돈부족(17.2%), 가족 간의 대화부족(12.3%), 가사 일에 대한 스트레스(10.0%)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그 중에서 가족 간의 대화부족과 가사 일에 대한 스트레스는 도시 청소년들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27.9%), 세대차이(25.3%), 부모의 무관심(5.8%), 그리고 결혼가정의 증가 등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학교생활에서의 농촌 청소년들은 학업문제(19.3%)와 진학문제(17.1%)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는 농촌학교의 열악한 학습 환경(28.8%)과 미래에 대한 비전의 부족(19.7%), 그리고 우수한 학생의 도시로의 진출(18.2%)과 이와 관련된 농촌학교의 부정적인 이미지(12.9%)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다섯째, 문화·여가생활에 관하여 농촌 청소년들은 ‘문화·여가활동 그 자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24.9%)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불건전한 소비생활(16.3%),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16.7%)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농촌지역에 문화·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 부족(46.8%), 교육이 부재한 상태에서 잘못된 문화·여가생활의 답습(26.2%), 농촌지역의 기성세대들의 잘못된 문화·여가생활의 영향(17.5%)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진로 탐색 및 취업활동에 관하여는 농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21.1%), 농업 외 분야에 대한 취업의 어려움(13.0%), 취업 의욕부족(16.4%), 저임금 직종으로의 취업(16.2%) 등을 주요한 문제로 응답하고 있으며, 이는 낮은 학업성취도(22.0%)와 직업선택 기회의 부족(17.4%), 취업을 위한 진로교육의 부족(18.9%), 취업정보의 부족(15.2%) 등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촌 청소년들의 정보화생활에서의 문제는 낮은 정보활용도(29.0%), 정보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28.1%), 컴퓨터 등 정보기기 조작능력 부족(24.1%), 불건전한 정보의 잦은 이용(18.8%) 등이 주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는데, 이는 정보화를 위한 환경 여건의 부족(37.9%), 정보화 필요성 인식을 위한 기회 부족(22.0%), 정보화 활용에 대한 매스컴의 잘못된 영향(13.6%) 등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Ⅲ. 미국 청소년정책과 농촌청소년 교육

1. 미국의 지역사회개발 중심 청소년정책

1960년대부터 2000년까지 지난 40년 동안 미국의 청소년 정책과 실천기조는 몇 차례의 눈에 띄는 전환기들을 겪어왔다. 이러한 전환기를 시대적인 조류에 근거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면, 1960년대는 대중적 혹은 정치적인 관심이 청소년을 주로 심각한 문제집단으로 규정하려는 분위기였다. 따라서 정책의 초점은 학교중퇴, 가출, 미혼모, 어린이와 청소년 학대, 그리고 청소년

년 범죄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적인 기관과 단체들의 역량을 키우려는 쪽으로 모아졌다. 1970년대 들어오면서, 여전히 문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복지센터 설립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불우한 처지에 놓인 청소년들과 함께 일하려는 대중적인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도 되었다. 즉 청소년들이 비록 도움을 받을 처지에 놓여있을지라도, 그들은 스스로의 자립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기 시작했으며, 프로그램들 역시 청소년들을 통제하거나 억압하기 보다는 그들이 중요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격려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1980년대 청소년개발 사업의 새로운 경향은 일차적으로, 문제발생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정책 담당자들과 청소년 기관 운영자들 모두 가장 효

과적인 위기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여전히 프로그램의 핵심은 발생하는 문제들을 최소화하는데 있었다. 이 시기에 수많은 프로그램들과 교육내용들이 10대 청소년들의 음주, 흡연, 성 접촉, 무단결석, 혹은 폭력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접근방식에 있어서는 같은 문제를 가진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와 함께 포괄적인 예방대책에 대한 주장들도 점차 확대되었다. 1990년대는 미국 청소년개발 사업의 새로운 접근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이때부터 다수의 국가 기관에 의해 주도적으로 청소년들의 자산가치에 기초한(asset-based) 청소년개발 프로그램들을 발전시키게 되었으며, 청소년들 위한 국가적인 협력기관과 예산의 증대와 함께

<표 2> 일반적 접근법과 자산토대 접근법의 비교

일반적인 접근법 (Common Approaches)	자산토대 접근법 (An Asset-Building Approaches)
• 문제행동 중심	• 긍정적 잠재력 중심
• 프로그램 위주	• 대인관계 위주
• 손가락으로 지적하고 책임 떠넘기기	• 중요한 역할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감 갖기
• 수동적 행위	• 적극적 행위
• 욕구를 해결을 주로 전문가들에게 의존	• 청소년들이 가진 자산에 기초하여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권한 부여
• 부모, 청소년, 그리고 지역사회에 고정된 역할 규정에 근거 청소년들이 지닌 결함에 초점	• 청소년, 가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힘에 초점을 둠
• 청소년을 행위의 대상으로 간주함	• 청소년을 행위자(주체)로 봄
• 일시적인 관여나 간섭에 의존	• 청소년들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데 주력
• 고립된 상태로 혹은 치열한 경쟁속에서 관련 기관 및 조직들이 운영되도록 함	• 지역사회의 욕구와 부합되는 차원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협응적인 노력을 유도
• 청소년을 지역사회 및 가족 혹은 이웃들과 분리된 대상으로 취급	• 청소년의 생활을 중심으로 성인, 가족, 이웃, 학교, 지역사회 기타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강조함
• 문제가 없는 청소년을 기준으로 성공의 척도를 측정함	• 성공의 척도를 긍정적인 태도들, 행동들 그리고 기술로 측정함
• 심화된 문제점들에 대한 절망감을 부추김	• 변화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증진시킴

※ 자료 : Search Institute(1998). 「Taking the Asset Approach : What's the Difference」의 재구성

청소년지도사(Youth Worker) 훈련과정이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되었다. 또한 청소년들이 단순히 프로그램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성장한다는 인식의 전환으로부터 청소년 개발을 위해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현실적인 공감대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전환점(Turning Point)에 들어서면, 일차적으로 청소년과 연관된 가족문제, 사회제도,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의의 시도하였으며, 동시에 그들의 책임감, 권리, 재능 및 요구 등에 관한 개념들도 새로운 상황에 걸맞게 정리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었다. 그리하여 청소년,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이슈들 중에서 “결함(deficits)”이라는 용어가 “자산(assets)”이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문제중심적 청소년개발(Problem-focused Youth development)이 긍정적 청소년개발(Positive Youth Development)적 시각으로 바뀐 것은 커다란 변화의 한 증거이다.

또한 청소년,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신들의 발전을 위한 제 3의 역할에 대한 상호이해와 협력관계 유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함께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천함에서 나오는 시너지(synergy) 효과를 점차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2. 학교중심 농촌 청소년교육

농촌 청소년 교육은 고등학교, 지역사회대학, 4년제 종합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등학교 농업교육은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과 학교를 졸업하고 농장을 개설하거나 준비하고 있거나 현재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을 모두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는 종합중등학교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등학교 농업교육의 목표는 일반 교육목표, 농업교육 일반목표, 농업직업 교육목표로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육과정은 개별학습, 집단학습, 그리

고 교실학습 등으로 진행되며, 교육방법상의 특징은 문제해결법(problem solving methods)에 기초를 두고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사-학생간의 활발한 의사교환과 실습 등을 통하여 학생들 스스로 배우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문제해결법의 일반적인 절차는 ① 학습목표 설정, ② 학습문제 선정 및 규정, ③ 잠정적인 해결방안 결정, ④ 교사의 지도와 안내 아래 활발한 토의 및 실증연구, ⑤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확정 등의 과정을 밟는다. 문제해결법은 영농과제실습법, 영농학생회와 더불어 미국교육의 커다란 특징 중의 하나이다.

미국의 고등 교육 기관들은 대체로 단과 대학(College)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되어 왔다. 교과 과정은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4년간의 학부 과정을 마치면 학사학위를 받게 된다. 학교에 따라 학부과정만 운영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경영학, 교육학, 법학, 의학 등 몇 개의 대학원 과정을 갖고 있는 곳도 있다. 종합대학(University)은 몇 개의 학부 과정과 의학, 약학, 경영학, 법학 등의 대학원, 전문학교들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 주마다 주립대학들이 설립되어 있으며, 그 외 많은 사립대학들이 있다. 주립 대학은 19세기 농업이나 공업 교육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불하받은 토지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주립대학은 모든 주에 분포되어 있다. 사립대학은 1636년에 설립된 Harvard 대학교가 그 효시이며 주로 종교 재단이나 단체 혹은 개인이 직접 설립한 것이다. 종합대학에서 학부과정은 4년제이며, 이 과정을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대학원은 대체로 대학에 속해 있지만 독립된 경우도 있으며, 과정 이수 후 석사 혹은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3. 미국의 4-H 활동

미국의 4-H의 연령은 5세에서 19세 사이의 해당되며, 약 550만명의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4-H 멤버의 15%는 농장(farm)에서 살고 있으며, 1/3 이상이 인구 10,000 이하의 작은 도시(small town)에 거주한다. 그리고 절반 이상은 대도시, 도시외곽지역, 혹은 시내에 거주하며, 약 600,000명의 10대와 성인 자원봉사자가 4-H 프로그램과 각종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미국 4-H활동의 핵심은 “4-H Youth Development”이다. 이것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특성, 즉 인지적 발달(cognitive development), 사회성 발달(social development), 도덕성 발달(moral development), 신체 발달(physical development)에 근거하여 건강 및 육체적인 능력, 개인적 및 사회적인 능력, 인지적 및 창조적 능력, 직업적 능력, 국제 이해 능력 등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또한 4-H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 수질관리 프로그램과 같은 환경보호, 농업문제, 가정경제, 건강관리, 스포츠,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 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농촌지역의 4-H회원들은 주로 가축, 작물, 양계, 산림자원, 마케팅, 그리고 농업기계 조작에 대한 기술을 배우며, 새로운 영농방법에 대한 실험 및 실습 등에 참가한다. 또한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도시 혹은 도시 외곽지역 회원들은 지역사회개발, 대화기술, 정원관리, 사진촬영, 대중연설, 목공, 그리고 개인적인 재능개발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다소 연령이 높은 회원들은 직업훈련, 금전관리, 그리고 소비자 교육 등의 프로젝트에 참가한다.

4-H 클럽활동의 접근유형은 회원들의 관심 및 지역의 특성에 따라 Community 4-H Clubs, Project Clubs, Special Interest Groups, 4-H EFNEP (Expanded Food and Nutrition Education Program), Television Teaching, Special Activities 등으로 구분된다.

미국의 영농후계인력 육성사업에서 4-H클럽 활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군단위(County) 4-H조직은 각 단위에 속해 있는 4-H클럽을 지원하며 자원지도자, 4-H회원,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이 지도요원과 함께 4-H 프로그램을 계획

한다. 군단위 행사로는 캠핑, 전시회, 품평회, 그리고 현장견학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밀접하게 진행된다.

주(state)단위 4-H 프로그램은 주립대학에 상주하는 주협동지도요원은 군단위요원에 대한 훈련 및 평가, 출판물 및 다양한 학습자료제공, 회의주관, 주단위 활동 및 행사를 계획하고 지원한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주단위 전시회(fair)에서는 그 지역의 농산물을 포함하여 많은 특산물에 대한 홍보 및 판매와 함께 다양한 지역사회 프로그램들이 소개되는 지역행사이다. 이 행사 진행을 위한 사전준비 및 홍보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참여 등에 있어 4-H클럽 회원들의 역할은 매우 크다.

전국단위 4-H 프로그램은 미 농무성의 연방지도요원들이 주단위 요원들에게 4-H 프로그램 설계 및 수행에 대한 조언과 전국 4-H클럽 후원회 및 전국4-H 서비스위원회와 같이 일한다.

IV. 농촌 청소년 교육의 추진 방향

1. 성인들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 학생 4-H교육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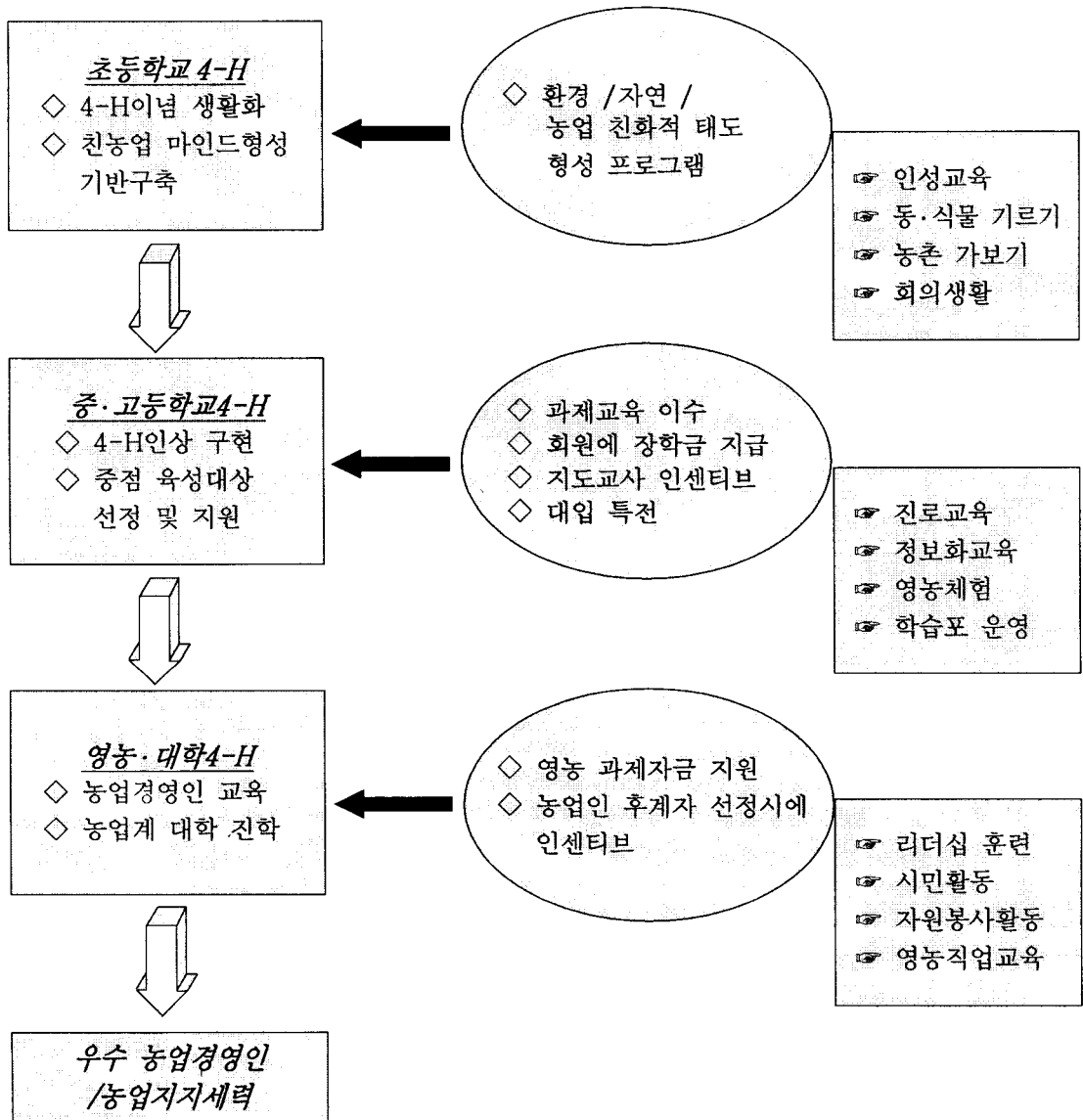
지금까지의 농촌사회교육은 그 당시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는 데 역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오늘날은 앞으로 발생할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prevention)하고, 다가올 상황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Preparation)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인간형성(positive human development) 및 지역사회 개발(communitiy development)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추진방향의 핵심개념은 청소년과 성 인간의 파트너십(Partnership)으로, 의사결정, 계획, 그리고 실행 단계에서 청소년을 동등한 파트너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상호존중과 신뢰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성인들과 청소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한 일치된 견해를 도출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 개발에 관한 새로운 사고의 한 단면으로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경영이론의 몇 몇 핵심적인 개념에도 반영될 수 있다. 청소년과 성인 상호간의 파트너십 접근방식은 연령에 근거한 위계사회를 탈피하여 청소년들이 많은 공헌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마치 새로운 관리 기법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조직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감을 동등하게 청소년 관련 단체 및 기관들은 전망(vision), 임무(mission),

그리고 실천(practice)을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는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고 있다.

- 1) 문제 행동의 원인들을 밝혀내고 청소년들을 위하여 재능, 자신감, 특성, 연관성, 그리고 기여 등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강조한다.
- 2) 청소년들의 삶의 전체적인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며, 인간이 성장하는 동안 자신이 속한



〈그림 1〉 4-H 육성체계와 비전(최창욱, 2003)

가족,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전체사회 등을 포함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형성되어짐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 시기를 그들의 전체적인 삶으로부터 구분되어지는 시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3) 모든 사람들이 청소년 개발에 대한 서로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과 지역사회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이 지역사회의 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청소년들은 일상적인 시민활동에서 성인들과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해야 한다.

4)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지원과, 학습, 경제활동,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 등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4-H회원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기관들은 모든 직원들과 프로그램 관련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인격을 존중하며 또한 지속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관들은 구성원 모두가 공동의 목적, 다양성, 자율성과 책임감에 대한 존중, 활력 있는 성장과 변화 등이 격려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청소년들을 그들 삶의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파악하고 실천적인 가치를 연계시켜야 한다. 모든 직원들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슈와 문제들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을 찾고 나아가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방향과 치유방법을 발견해야 한다. 4-H클럽 육성기관들은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어떤 한 가지 상황을 좀 더 심도 있고 철저한 관찰을 통해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수립하여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의 현재 혹은 미래자원(resources)의 시각에서 각각의 독특한 상황에 부합되는 독창적인 해결 전략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기관들은 장기적이며 획일적으로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기관 혹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학습과정, 발견능력배양, 성취결과를 반영하는 기회창출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하는 4-H클럽활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일상적인 시민활동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내부 혹은 외적인 문제해결 과정에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들의 참여를 통하여 활력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해결 전략을 모색할 수 있으며, 또한 성인들과의 파트너십(partnership)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그들에게 사회적인 책임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청소년 개발의 목표와 청소년 및 성인들의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행동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참여시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2. 지식기반 산업에 기초한 전문 영농후계인력 육성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영농후계인력과 관련된 정책 수립에서 검토되어야 할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농업생산의 특성 때문에 야기되는 농산물 시장실패와 시장왜곡 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꾸준히 마련하여 농업인들이 현재 혹은 미래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를 갖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직 시도 단계인 농산물 가격안정과 지지정책, 재해보상 확대, 농업 및 농촌의 공공경제효과를 보상하기 위한 지원정책, 그리고 직접보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농촌지역이 농촌주민들의 바람직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농외소득개발, 주 5일제에 따른 관광자원 개발, 복지제도 및 복지시설 확충정책, 그리고 농촌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권리행사 혹은 소속감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농촌지역이 이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지나치게 부족하거나 미래에조차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농촌주민들은 보

다 더 낡은 기회를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농업전문가(Agricultural Specialist)들에게 그들의 직업에 대한 열등감을 해소하고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업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격증 소유자에게는 농지구입과 농업금융 지원 등에서 특별한 우대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 예를 보면, 일본에서는 청년농업사 혹은 지도농업사라고 호칭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마이스터(Meister), 덴마크는 녹색교육증(Green Educational Certificate), 그리고 프랑스는 영농수료증(BTA Agricultural Diploma)이라고 부르고 있다. 물론 농업전문가로서 여기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수여 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과정과 심사를 거쳐야함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 4-H 교육, 후계자교육, 전업농 교육, 선도농교육 등을 농업고등학교, 농업전문학교, 농과대학과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하여 관련기관들이 유기적인 교육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단계적이며 지속적인 사후교육의 미비와 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 농업전문가들에 대한 사후조치 등이 효과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급변하는 국내의 농업환경 및 시장경쟁력에 부응하고 농업인력의 경영능력 및 마케팅 능력 향상에 의한 수익성 위주의 농업경영으로 농업의 비교우위 실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토지, 노동 등 자원부족 상황에서 투자자본의 효율적 이용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경영자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및 취농교육, 경영교육, 전문기술교육, 컨설팅 등을 경영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경영효율화를 통한 생산성·수익성 제고를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단위의 규모화, 시설·장비현대화에 맞는 경영기법을 확립하고, 동시에 복식부기 등 계획영농을 통해 비전을 창출하도록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농업의 고도화·고부가가치 유도를

위한 지식과 기술을 이용한 지식기반 농업의 육성이 또 하나의 과제로 부각하고 있다. 경쟁력의 원천이 토지, 노동에서 지식·기술로 이동, 신지식인, 벤처농은 지식과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농업 실현, 농업환경의 변화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농업 육성, 시장·소비자지향, 환경친화적 농법, 세계시장 지향 등이다. 이와 더불어, 농업의 농산업화, 첨단화, 고부가가치 유도 및 생산위주에서 생산, 가공, 유통을 망라한 농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방법으로 다품종 개발, 계획생산, 전자상거래, 농촌관광 등을 활용하며, 생명공학과 같은 다각적인 농업 관련 산업 육성으로 농업발전도대를 마련하여 새로운 품종, 고효율 농업자재, 신선유통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3. 농촌 청소년교육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청소년지도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확립의 필요성은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 상호간의 역할 분담의 방법, 정보통신기능의 도입과 활용 등과 관련지어 논의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에 대한 생각은 지역의 청소년 육성 및 다양한 활동지도를 지원하는 학습시설, 단체, 지도자 및 지역주민들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견해이기도 하다. 이 같은 지역의 다양한 인적 혹은 물적 자원들이 서로간의 공존공영을 추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현재의 자원으로서는 혹은 미래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중심적인 일꾼을 육성한다는 공통적인 목적아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구해나가는 과정으로 나타나야 한다.

지역사회 청소년지도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사회 지원네트워크 조직의 특징은 첫째, 참가조직들 간의 실질적인 가치를 용인함으로써 다양한 것과의 공존·공영을 추구할 수 있으며, 둘째, 참가조직의 주체성을 존중하여 각각의 권한보장과 존재성을 인정하고, 셋째, 조직의 유

연성, 쌍방향성 및 호혜성 있는 자원 및 자료의 교환을 통하여 각각의 장점을 상호 향유하자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조직 간의 다양한 요구수용과 활동전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신속성과 동시진행성 등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에 기초하여 지역사회 청소년지도를 위한 기관간의 지원네트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파악하고, 각각의 기관에 근무하는 인적자원을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다음으로 기관간의 네트웍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정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수집 협력 네트웍의 확립이 대단히 중요하다. 나아가 청소년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상담지원 네트웍이 구축되기까지 인적인 협력체제를 정비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을 위한 국제네트웍 단체의 Della Huges (2000)가 도입한 지역사회 청소년개발 프레임에 의하면, 지역사회의 지도자 혹은 실천가들은 청소년들과 함께 협력하여 일하려는 생각을 의도적으로 가지고 접근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청소년들과의 인간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청소년들과의 관계지향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은 상호존중과 적극적인 참여를 제의하는데 있으며, 청소년들과 어른들이 함께 일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청소년개발 사업은 젊은이들에게 지역에 대한 애착심, 주인의식, 성취감, 그리고 봉사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역사회에 효과적인 청소년개발 프로그램에서 고려되어야 할 구체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적인 청소년 개발사업의 방향이 예측가능하고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들의 자산(assets)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프로그램의 고안(design), 실행(conduct),

그리고 평가(evaluation)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참여를 중요시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들과 그들의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문화적인 상황의 다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넷째,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안전과 접근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들의 도전의식이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내부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고려해야 한다. 여섯째, 다소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그리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전체적인 지원체제와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필요하다. 일곱째, 성인지도자들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여덟째, 청소년들의 생활기술 개발을 강조해야 한다. 아홉째, 프로그램 평가에 역점을 두고, 프로그램 고안(design), 전달(delivery), 그리고 평가(evaluation) 등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인권옹호에 관심을 갖는다.

4. 농촌 여건변화에 따라 '신형(新型)' 리더십 강화 전략

이농과 고령화로 농촌 발전을 선도할 리더 자원이 부족해지는 반면에 농촌개발 정책이 주민 본위의 사업추진 방식으로 바뀌면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젊은 지도자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특히, 최근 농업정책의 방향이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능력과 지역주민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역의 기관 및 단체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지도자의 발굴 및 훈련과정이 지역사회 개발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지역사회 리더의 적극적 사고, 활발한 사회적 관계가 마을발전의 핵심적 요소인 만큼 주민과의 인간관계와 적극적인 대외활동력과 같은 중요한 자질을 개발하기 위한 지속적인 훈련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실지로 이들에게는 새로운 농법과 기술 등을

〈표 3〉 리더십 성공 사례비교

구분	홍성 (환경농업시범마을)	장성 (한마음공동체)	광양 (청매실농원)	서천 (아리랜드)
주 테마	• 수도작 오리농법	• 공동체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 매실의 상품화와 가공품 개발로 주변지역 소득창출	• 도농교류
계기	• 오리농법 관련 정보입수 + UR의 영향	• 농민운동의 지역사회운동으로의 전환 + 유기농업 확산의 사회상황	• 시부가 매화나무 다량식재 + 좋은 경관	• 부친이 동백나무 등 다량식재, 도농교류의 자원화 기반
사회관계				
유대감	• 청장년인구 많고 벼농사 위주로 주민간 소득격차 적고 공동체 유대감 높음	• 교회공동체를 통한 결속. 지도자에 대한 높은 신뢰	• 농원-주민간 오랜 경제적 관계. 전통 행사를 통한 공동체의식 유지	• 신앙(기독교)에 기반을 둔 유대감
혁신수용성	• 수용성 높지 않음. 경제적 성과로 기술확산	• 공동체의 친환경농업 참여 높지 않음.	• 매실 신품종, 기술수용성 매우 높음.	
정책지원	• 초기 지도소의 지원이 큰 힘. 성공후 중앙정부 지원 많음.	• 초기 유통시설에 대한 일반적 지원으로 규모 확대 가능. 사업확장(학교)시 지원	• 초기 지원 별무. 성공후 일부 지원 있으나 부족	• 도농교류 관련 정부 프로그램을 잘 활용
지리, 자연여건	• 답작 적합지역	• 인근 청정지역. 소비시장 근접	• 매실 재배 및 관광객 유인 적합역	• 마을 안팎 관광자원 보유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정기환 허장, 2002)

적극 수용하면서 마을 혹은 공동체 전체로 확대하려는 노력과 리더가 혁신적 사고를 가지고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정기환·허장, 2002). 그러므로 농촌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초기 성과를 널리 알리고 주민의 자부심을 고취하며 신뢰와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영농4H회를 주축으로 하는 지역사회 리더의 역할 및 육성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1) 마을내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경

제조직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마을 리더를 대상으로 마을 외부와의 교류를 확대해 마을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타 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함.

3) 지역개발 전문가 과전 제도를 도입해 마을의 특성과 자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줘야 함.

4) 정부는 농촌마을 발전을 위해 초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임.

5. 주 5일제 생활패턴에 따른 농산물 판매 및 농촌관광 교육

주 5일제근무 확대와 함께 주민들의 생활패턴 변화요인에 대한 예측과 함께 가시적인 변화들을 중심으로 농촌 청소년 지도 및 교육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도시민들의 가족단위의 생활중심으로 사고방식이 전환될 것이다. 종전에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일터와 일감 중심으로 생활해 왔으나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가족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의 취미활동 증가에 부합되는 실천 가능한 농촌 청소년 교육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 5일 근무제 시행 이후에는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야외활동을 모색 여가관련 산업의 활성화 주 5일 근무제는 여가와 관련된 관광, 레저, 문화, 사회교육, 유통업 등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여행, 등산, 낚시 등 취미 및 여가 활동에 적합한 식품 등 반가공 상태의 간편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이므로, 영농4H 회를 주축으로 지역사회 전체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농산물을 포함한 지역특산품 판매 및 다양한 지역행사 등을 통한 농산물 판매 교육 및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민들의 소비행위에 엄청난 변화양상을 가져올 것이다.

상품판매 형태의 다양화, 제품 및 서비스를 단순·개별 품목별로 판매하는 방식에서 소비자의 활동분야나 테마에 따라 상품을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을 농산품 판매에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쇼핑형태와 유통경로의 다양화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통신판매 등 전자상거래도 확산을 대비하기 위한 농촌 청소년 교육을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친환경 농업과 안전 농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무공해 농산물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교육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농촌관광의 활성화에 따른 방향과 그 대책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그린투어리즘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여가의 활용패턴이 가족중심, 시간소비형으로 전환되면서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 증가, 농촌관광의 형태는 이제까지 주유(周遊)형 중심에서 체류(滯留)형의 비중이 차츰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농촌지역에서는 주유형 관광객과 체류형 관광객의 유형에 따라 특징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물질적 기반시설(통신, 숙박, 취사 등) 및 인적 기반시설(농산물 조달·판매, 연락망 등)을 정비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정기적인 교육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도·농교류의 활성화와 도시민의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이다.

도시와 농촌간 교류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말농장 경영, 전원주택, 주말주택 개념의 펜션주택 등 전원생활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 증가, 시간적 여유와 체험욕구의 증대에 따라 주말농장 경영에 대한 수요도 현재보다 늘어나고, 대부분 도시 주변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주말농장은 보다 먼 곳까지 확산될 것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와 같이 농촌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농가는 도시민에 대한 숙박제공, 농특산물 판매 등을 통하여 농외소득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체반시설 및 홍보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촌지역의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의 음식, 숙박 및 부대서비스업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창출하고, 농한기에는 지역의 유희노동력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에 대비한 농촌 청소년들의 사전 취업준비 교육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넷째, 고품질 우수농산물의 판매 확대와 도시민의 방문 직거래가 증가할 것이다.

여가시간의 증가와 농촌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터넷 등을 통한 소비자의 정보 수집량이 많아짐에 따라 브랜드 농산물, 고품질 우수 농특산물의 전자상거래가 확대될 전망이다. 농촌 지역에서는 전통 5일장, 지역특산물 축제 등 관광과 쇼핑이 결합된 농촌지역의 이벤트 정례화하고, 나아가 이를 통한 지역특산물에 대한 흥

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도시민의 방문 직거래 장터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농촌 청소년 정보화 교육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V. 글을 나오며

한국의 농업정책과 농업인력육성 정책은 국내외 산업 및 교역환경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보여 왔다. 특히 1990년대 이후 UR 타결과 함께 새로운 WTO 체제의 출범으로 인하여 농산물의 교역자유화 형태는 후진국의 식량부족과 선진국의 잉여농산물 처리문제로 양극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농진청, 1999). 정부는 최근 우리나라의 농촌과 농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핵심모토로서 “선택과 집중”이란 원칙하에 예산지원, 전문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을 3대 축으로 하는 발전정책을 발표하였다(농림부, 2002). 이는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자원의 효율적 개발 및 관리를 추구하기 위한 시각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갈 추진세력으로써의 농촌 청소년 교육은 그들에게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삶의 기회들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향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첫째로는 농촌 청소년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기 위하여 농업관련 분야를 포함하여 자신의 관심분야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다. 모든 젊은이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비롯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에 요구되는 재원을 마련하여, 자신과 가족들을 부양할 능력을 지닌 존재로서의 기대감을 가져야한다. 이를 위해, 그들은 적절한 직업을 가져야 하고 또한 직업인으로서 자신을 향상시키고 변화하는 직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학습과정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는 농촌지역이 바람직한 삶의 거주공간으로서 다각적인 토대를 확립하여, 농촌 청소년들이 화목한 가정유지와 사회적인 인간관계 형성을 위하여, 젊은이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해야 하며, 그들의 자녀들에

게는 모범적인 보호자로서, 그리고 친척들 및 동료들을 비롯하여 지역주민들과 역동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는 그들로부터 지역사회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공헌을 기대할 수 있다. 농촌 청소년들은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거나 법규를 준수하는 수준에서 출발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환경지킴이, 특산품에 대한 마케팅, 다양한 전통문화 계승 및 문화행사 참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같은 목적을 효율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중고 시절에 다양한 프로그램 참가와 과제 활동이수와 같은 학생 4-H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 성장을 성공적으로 유도하는데 필요시 되는 학교생활을 잘 수행하고, 학교 밖에서의 취미활동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며, 그리고 기초적인 생활기술들을 획득하여 생산적인 인간이 되는 학습을 해야 한다.

결국 합리적인 농촌 청소년 교육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정확한 대상 집단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집단 간의 서로 다른 요구와 폭넓은 다양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도체계의 차별화전략이 필수적이다. 그 다음 단계로는 더욱 구체적인 목표설정, 대상 집단에 대한 명료화,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요구 등에 근거하여 접근되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 가속화될 지방화시대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경쟁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지역사회 중심적인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개발 사업 및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지역사회 지원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체계적인 프레임을 확립해야만 한다.

VI. 참고 문헌

1. 강정일 외, 1996, 개방화시대에 대응한 농업 과학 기술개발 및 보급전략에 관한 연구. 농업특정연구과제 결과요약집.
2. 강신겸, 2001, 여가시간 확대와 농촌관광의 새로운 가능성, 농어촌과 사회.
3. 김범수, 2001, 한국형 그린 투어리즘에 관한

- 연구, 관광농업연구 제8권 2호.
4. 김동일, 1995, 한국의 농촌청소년: 2000년대를 향한 농촌의 청소년연구, 문음사.
 5. 김동희, 1994, 국제화시대의 농업정책, 한울아카데미.
 6. 김성수 외, 2000, 21세기 농촌청소년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7. 김철규, 1999, 현대 미국 농업 구조의 특징과 변화의 동학, 농촌사회 9집.
 8. 농림부, 2000, 지식기반경제사회에 대비한 지식기반 농업 추진방향. 농림부 농업정책과.
 9. 농촌진흥청 농업경영관실, 2001, 선진국의 농가경영컨설팅기법과 체계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농촌진흥청 귀국보고서.
 10. 농촌진흥청, 2000, 농업기술센터 경영평가모델 및 인센티브제도 개발, 대한경제연구원.
 11. 농촌청소년문화연구소, 2001, 4-H이념 실천 프로그램 총론, 농촌진흥청 · 한국4H본부.
 12. 소만호, 2002, 농업후계인력 장단기 정책방향과 교육 · 훈련과제. 제 8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인력 담당자 워크샵 자료, 농민신문사.
 13. 신동완, 1994, 21세기 농촌지도사업의 선택,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1):1-10.
 14. 안덕현 외, 2001, 농업인력 확보 및 육성방안 연구, 한국농업전문학교.
 15. 오해섭, 2001, 미국 청소년 개발사업의 역사적인 변천과정 및 새로운 페러다임,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8권 제1호.
 16. 이용환 외, 1997, 농업교육학개론, 서울대출판부.
 17. 윤재만 · 이인호, 2002, 주 5일제 근무가 농업 · 농촌에 미치는 영향, 농협조사부.
 18. 정기환 · 허 장, 2002, 농촌마을의 리더십구조와 역할에 관한 연구,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R443.
 19. 정철영, 2002, 지식기반사회에서 농업인력양성,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34권 4호.
 20. 최민호, 1987, 농촌청소년지도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1. 최창욱, 2003, 강원4-H 발전토론회 자료집, 강원도 4-H본부 · 강원도농업기술원.
 22. 한국4-H신문(2003, 3월 1일자 제4면). 한국4-H본부.
 23. 황명철, 2002, 프랑스의 국토경영계약(CTE) 제도, 농협중앙회 조사부.
 24. 황수경, 2002, 근로시간 단축 및 휴일 · 휴가제도 개선에 따른 비용 · 편익 분석, 노동연구원 보도자료.
 25. Etling A., 1996, Guidelines for Change, Journal of Extension Vol. 34. No. 6.
 26. FAO, 1999, The Internet and Rural Development, Rome: FAO.
 27. FAO, 2001, World Agriculture and Rural Extension: Institution Reforms of Developing Countries.
 28. Harrman & Daugherty, 1992, Staffing Extension for the 21st Century, Journal of Extension, Vol. 30. No. 4.
 29. Harris, E. M., 1996, The role of participatory development communication as a tool of grassroots nonformal basic education, Workshop Report 1.
 30. Harrman & Daugherty., 1992, Staffing Extension for the 21st Century, Journal of Extension Vol. 30. No. 4.
 31. Lippert, M. Robert, 1995, Applying Total Quality Management in Cooperative Extension, Journal of Extension, Vol. 33 No. 3.
 32. Miller. B. M., 2001, The Promise of After-school Programs, The Journal of Educational Leadership, Vol. 58, No. 7. <http://www.ascd.org/readingroom/edlead/0104/miller.html>.
 33. Petrzelka, 1999, Extension's Portfolio for the 21st Century, Journal of Extension, Vol. 37, No 6.
 34. Schutjer, Wayne A., 1991, Rural Development and Extension, Journal of Extension, Vol. 29 No. 1.
 35. Seevers et al., 1997, Education Through Cooperative Extension, Delmar Publishers.
 36. Walker, J., 1988, Youth Development Education: Supports and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Center for 4-H Youth Development, University of Minnesota.
- (2004년 10월 11일 접수, 심사 후 수정 보완)